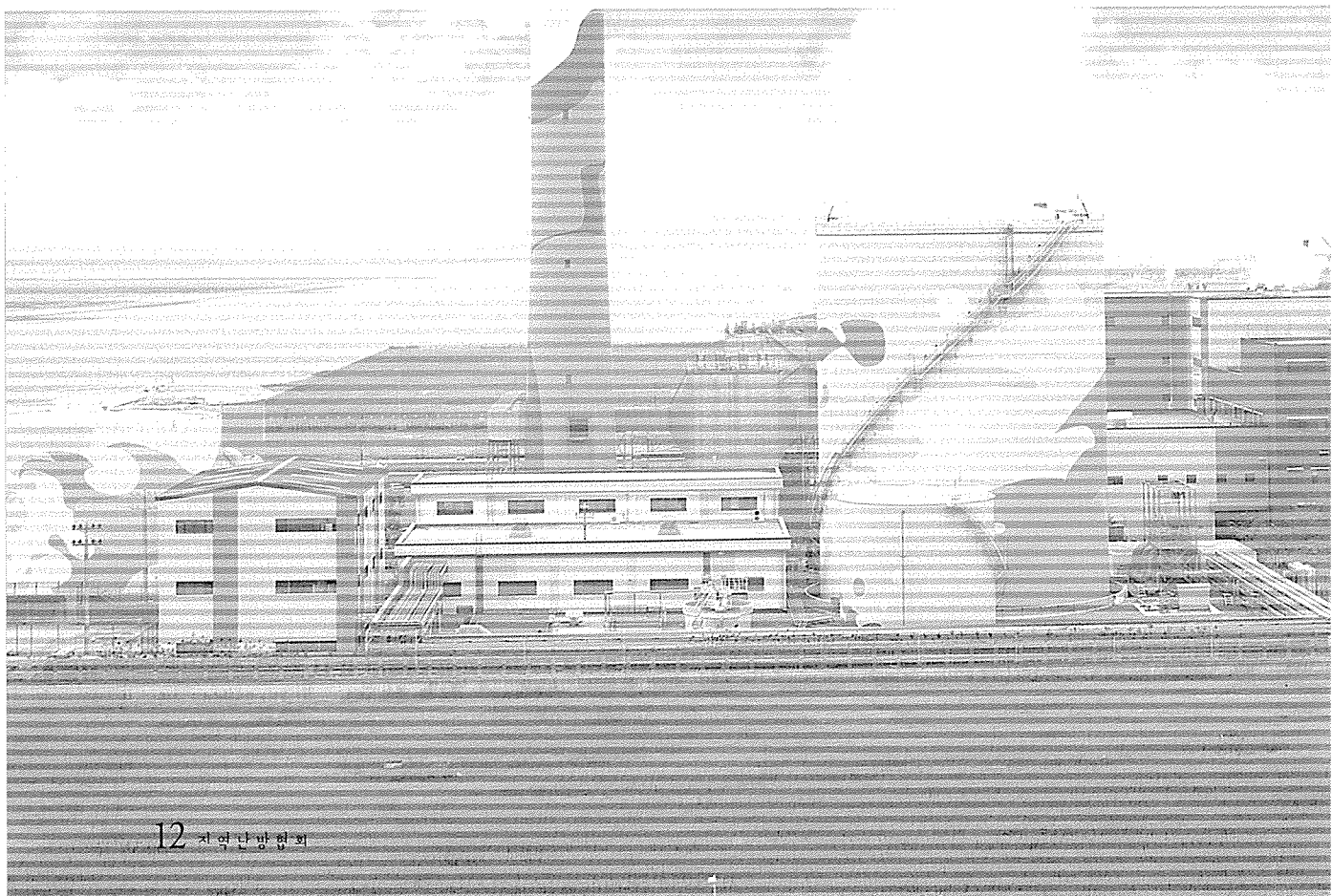




안산도시개발(주)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산업계의 *New leader* 정동년 사장

경영혁신으로 열공급 5년 만에 흑자 일궈내...



정동년 / 안산도시개발(주) 사장

1995년 6월 28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치창조를 기업이념으로 설립된 안산도시개발(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51%, 안산시에서 4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종의 지방공기업인 제3섹터 법인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안산 고잔 신도시지역 최초 열공급과 2001년 9월 열병합발전설비를 종합 준공함으로써 안산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열생산 시설로는 열병합발전용 보일러 1기(열 : 102Gcal/H, 전기:62.6MW), 열전용 보일러 34.4Gcal/H 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로부터 9Gcal/H, 산업단지 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20Gcal/H의 폐열을 수열하여 2004년에는 총 열공급량(436,124Gcal)의 28%인 122,078Gcal를 소각열로 활용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는 열생산량의 32%를 소각열로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인근의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함으로써 저렴하게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활용의 극대화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전기 집진시설, 저녹스 버너, 오페수 정화시설 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안산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5년 10월 현재 안산시 고잔 신도시 및 기존지역 지역난방 열공급 세대수는 42,493세대로, 향후 계획세대의 대

부분이 재건축 단지이고,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지역난방의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수요개발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포화연도인 2010년에는 열공급 세대수가 63,290세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10월 현재 안산도시개발(주) 현원은 70명으로서 열병합발전소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혁신으로 1999년 최초 열공급 이후 5년, 열생산시설 종합 준공 후 3년만인 2004년 19억원의 흑자전환을 이루었으며 2005년에는 당기순이익 4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

2005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회사에 5대 사장인 정동년 사장이 4월 취임하였다. 정동년 사장은 더욱 회사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앞으로도 안산도시개발(주)는 21세기형 녹색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안산시와 더불어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 이룩한 지역난방사업을 발판으로 향후 10년 후를 바라보며 새로운 사업분야를 모색하고, 준비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짧은 시일 내에 흑자전환을 이루어 냈으로써 지역난방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손꼽히는 안산도시개발(주)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회사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지역난방 사업을 발판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